

“창업 생태계, 길을 찾자” 내일 광주서 창업포럼

예비창업자 등 200명 대상
투자 설명·지원 사업 소개
“창업문화 광주 전역 확산”

광주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31일 광주역에서 지역 예비창업

자, 창업기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월 광주창업포럼’을 개최한다.

광주시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호남권 최대 창업지구(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광주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포럼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광주창업포럼은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자들

로 구성된 민간 운영위원회 및 창업지원 기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투자자, 언론 등과 협업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매회 200여명의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등 지역 대표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전환도시 광주, 창업 생태계의 길’을 주제로 ▲창업지

원사업 설명회 ▲전문가 초청강연(김영록 넥스트챌린지대표) ▲투자유치설명회(IR) 등이 진행된다.

창업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콘텐츠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들을 위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안내한다.

초청강연을 맡은 김영록 대표는 ‘진격의 늑대’, ‘변종의 늑대’ 등의 저자로 창업기업 생태학자, 창업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디지털 전환도시 광주, 창업생태계의 길’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시대의 지역 창업기업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투자유치설명회(IR)에는 지역 창업

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제품(아이템)을 홍보하고 지역 투자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포럼에는 ‘쥬빛그림’, ‘쥬넷츠프리’ 등 2개사가 참여한다.

주재희 광주시경제창업실장은 “창업포럼을 꾸준히 개최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창업문화를 광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광주역을 중심으로 조성될 창업지구(밸리)를 통해 지역 창업기업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소방, 여름철 폭염구급대 운영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119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지난해 폭염과 관련된 온열질환자는 총 33명으로 이중 29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온열질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온열질환자 발생 유형으로는 ▲열탈

진(13명) ▲열경련(7명) ▲열실신(6명) ▲열사병(3명) 순이다.

119폭염구급대는 구급차 33대와 열음조끼, 열음팩,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등 9종의 대응 장비를 갖추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구급대응 출동한다.

특히 지역 내 구급차가 없을 경우 펌블런스 27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펌블

런스는 소방펌프차와 구급차를 합성한 용어로, 응급환자 장시간 이송으로 지역 내에 구급차가 없을 때 긴급 출동해 초기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송성훈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여름철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늘 쉼터에서 주기적인 휴식, 폭염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생활안전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길용현 기자



온누리에 자비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7일 장성 백양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불축 법요식에 참석, 부처님 불상에 삼귀의례 의식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시농기센터, 농기계 정비 심화교육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안전하고 올바른 농기계 활용을 위한 ‘농업기계 정비 심화교육’ 참가자를 6월 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기종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높은 임대율을 보이고 있는 경운기·보행관리기·예초기 등 농기계 3

종이다.

교육은 6월 중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농기계 정비·점검 때 유의사항과 안전교육, 고장 진단·응급처치 등 이론과 정비실습을 병행한다.

대상은 (예비)농업인, 시민 4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희망

기수를 선택해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마당·교육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김시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계 정비·점검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전남도, ‘탄소배출권 확보’ 연구개발 본격화

블루카본 등 해양자원 활용 민간기업과 공동연구 추진

전남도가 탄소 격리 능력이 뛰어난 해양자원을 활용한 탄소 저감을 위해 관련 기업들과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과학원은 최근 (주)카치와 블루카본(Blue Carbon)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방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블루카본은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흡수한 탄소를 조식·파도 등 물리적 작용에 의해 갯벌(진흙) 사이사이 공간에서 포집된 탄소를

이르는 말이다. 육상보다 흡수 속도가 빨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탄소흡수원이다.

협약식에는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과 송우일 (주)카치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연구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주)카치는 대규모 소재한 업체로 탄소중립 실천 연구개발과 정보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해조류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방법 연구와 블루카본 개발에 나선다.

전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해조양식과 바다숲 조성, 종자 생산 기술 개발, 해조 서식지 확대 등 연구에 적극 협력한다.

(주)카치는 바다숲이나 해조양식 사업으로 조성하는 해조류 서식지에서 흡수된 탄소량의 정량적 측정과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한국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7억2,700만t을 기준으로 약 3억t인 40%를 감축해야 한다.

김충남 원장은 “탄소 격리 능력이 뛰어난 해양자원을 활용한 탄소 저감을 위해 국가, 관련 기업과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수익을 해조류 양식 어업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어촌소득 증대와 어업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5곳 선정

정주여건 개선... 166억 확보

전남도는 29일 “해양수산부의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응모한 5곳이 모두 선정돼 국비 16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행복한 삶터 조성, 시군 역량 강화사업 등 2개 유형으로 추진됐다.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은 기초생활기

반시설을 확충해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 사업은 ▲고흥 두원면권 40억원 ▲신안 증도면 증동권역 93억원 ▲장흥 안양면권 67억원 ▲완도 생일면권역 39억원이다.

시군 역량 강화사업은 어촌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리더 및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주민교육,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선 장흥이 선정돼 1억원을 지원받는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도와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 최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낙후 어촌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공모에서 4곳이 선정돼 국비 151억원을 지원받았다.

/정근산 기자

10월 전국·장애인체전 ‘안전’ 최선

도, 개·폐회식장 합동점검

전남도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 시·군,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추진한다.

개·폐회식이 열려 많은 사람이 모일 것

으로 예상되는 목포종합경기장, 목포실내체육관 등 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반은 ▲개·폐회식 안전요원 배치·안전관리 계획 ▲공사 현장 구조물 설치·건설기계 작동 상태 ▲시설물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 ▲누전차단기·전선 노출 여부 ▲가스 배관 고장·가스누출 여부 ▲화기 관리·화재 진압장비(소화기) 배치 여부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비상 통화 장치·도어 안전장치 작

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계도 조치하고, 절대 공기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집중호우 기간 이전까지 보수·정비계획을 세워 조속히 보완해 안전조치를 실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병철 전남도 사회재단과장은 29일 “양대 체전이 2008년 개최 이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다시 열리는 만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준비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www.goldclass.co.kr

다. 현재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려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